인지과학, 제29권 제2호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018, Vol. 29, No. 2, 137～160.
http://dx.doi.org/10.19066/cogsci.2018.29.2.004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논쟁과 함의*

설 선 혜† 이 승 민
부산대학교

본 논문은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인습 구분에 관한 최근의 논쟁들을 개관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도덕 판단에 대한 연구들은 규범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타인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위반한 규범의 도덕-인습 차원에서의 분류를 함께 고려해왔다. Kohlberg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발전시킨 Turiel(1983)은 도덕 원칙이 인습과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고 도덕-인습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덕은 보살핌과 정의의 영역에 특수하며, 보편성/객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도덕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인습 구분 기준에 대한 비판을 도덕 감정 이론(moral sentimentalism)과 도덕 지역주의(moral parochialism), 도덕 다원주의(moral pluralism)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도덕 감정 이론은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과 인습이 정서-비정서 차원의 연속선상에 혼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도덕 지역주의는 인류학과 비교문화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규범 위반 행위가 집단의 유지와 집단 내 개인의 존속에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규범 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의사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인습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상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문화와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도덕적 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살핌과 정의의 차원만 도덕에 해당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은 기존의 합리주의적 도덕 발달 이론에서 가정하였던 도덕-인습의 구분이 사람들이 실제로 규범 위반을 판단하는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요어 : 도덕-인습 판단, 사회 영역 이론, 정서, 도덕 지역주의, 도덕 다원주의

---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과 BK21 플러스사업(21B20151813119)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설선혜(부산대학교),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심리학과. 연구 분야: 사회심리학, 사회신경과학, E-mail: ssul@pusan.ac.kr

사회 규범(social norm)은 유전적 관련성이 낮은 개인들 간의 협동을 도와 인간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Schmidt & Tomasello, 2012; Tomasello, 2009). 사회 규범의 준수를 장려하고 위반을 억제하는 규범 시행(norm enforcement)은 법과 규칙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평판과 같은 사회적 장치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개인 내적으로 규범을 유지하는 기제, 즉 도덕성(morality)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Haidt, 2008; Kohlberg, 1969; Nussbaum, 2005; Tomasello & Vaish, 2013; Turiel, 1983). 사람들은 외적 제재가 없고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거나 비용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서도,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외면하고 추방하는 등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Fehr & Gächter, 2002). 규범의 시행은 어떤 위반 행위(transgression)가 옳은지 그른지(right or wrong), 좋은지 나쁜지(good or bad), 허용 가능한지(permissibility), 처벌 가능한지(punishability)에 대한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이렇게 규범과 관련된 타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판단, 정서와 사고를 포함하는 과정을 도덕 판단(moral judgment)이라고 한다.

도덕 판단에 대한 고전적 연구들은 인습과 도덕의 구분을 도덕 발달 단계의 기준으로 삼은 Kohlberg(1969)의 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다. Kohlberg의 인지 발달 모형을 계승한 Turiel과 동료 연구자들은 도덕 원칙(moral principle)과 사회 인습(social convention)의 구분이 도덕 판단의 기초를 이루며,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다른 규범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Turiel, 1983).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진화적 관점과 기능주의적 접근을 채택하는 연구자들은 도덕 판단의 정서 기전과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 중심으로 도덕-인습의 구분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만큼 명확하거나 안정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해 왔다(Fessler 등, 2015; Greene,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 Haidt, 2001, 2008; Kelly, Stich, Haley, Eng & Fessler, 2007).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도덕 판단 연구에서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져 왔던 도덕-인습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 도덕 심리학 이론들을 도덕 감정 이론, 도덕 지역주의 가설, 도덕 다원주의 이론으로 분류하여 개관하고, 도덕-인습 구분과 관련된 논쟁이 가져온 새로운 문제들과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Kohlberg의 후예들과 Turiel의 사회 영역 이론

도덕 판단 연구의 역사는 서양철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지만, 심리학에서 도덕 판단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Piaget(1932, 1965)와 Kohlberg(1969)부터라고 할 수 있다(Haidt, 2007, 2008). Piaget는 일반적인 인지 발달 모형 안에서 도덕 발달을 설명하였는데, 아동기에 어른과 규칙에 대한 절대적 존중 단계를 거쳐서 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도덕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추론과 판단이 가능한 성숙한 도덕성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Kohlberg는 Piaget의 모형을 발전시켜 도덕 발달을 인지 발달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도덕 발달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도덕 추론과 판단을 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포함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덕과 인습의 명확한 구분은 Kohlberg의 모형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Kohlberg는 도덕 원칙과 사회 인습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인습보다 도덕 원칙에 근거하여 추론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다 성숙한 발달 단계로 간주하였다[1].

Nucci와 Turiel(Nucci & Turiel, 1978; Turiel, 1983, 2008)은 아동이 능동적으로 사회적, 도덕적 지식을 구성하면서 도덕 추론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Kohlberg의 인지 발달적 관점을 계승하면서 도덕-인습의 구분과 관련된 이론을 정교화 하였다. Turiel(1983)은 사회적 세계를 도덕 영역(moral domain), 사회-인습영역(social-conventional domain), 심리적 영역(psychological domain)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는 사회 영역 이론(social domain theory)을 제안하였다. 도덕 영역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지켜야하는 정의, 권리, 복지와 같은 원칙들을 포함하며, 사회-인습 영역은 사회 구성원들의 조화와 질서 유지에 관련된 집단 내 관행과 규칙을 포함한다. 심리적 영역은 도덕적, 사회적 제재를 받지 않는 개인 고유의 가치를 반영하는 영역으로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도덕-인습 구분과는 무관하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사회 영역 이론(Turiel, 1983, 2008)에서는 도덕-인습의 구분이 도덕성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가정인 동시에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즉, 도덕-인습의 명확한 구분이 경험적 자료들에서도 관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도덕 판단 패러다임을 도덕-인습 구분 과제(moral/conventional task)라고 부른다. 이 과제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전형적인 도덕 원칙 또는 인습의 위반 사례를 보여준 뒤, 1) 위반 사례가 옳지 않다면 얼마나 심각한가, 2)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규칙이나 권위에 의존하는가(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의 지시나 교칙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가), 3) 규범을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가, 4) 규범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라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도덕-인습 구분 과제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기준은 처음 세 개의 질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범 적용의 보편성과 마지막 질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a).

첫째,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과 인습 위반에 대한 판단은 보편성 차원에서 구별된다. 규범 적용의 보편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허용성(permissibility), 일반성(generalizability), 규칙/권위 의존성(rule/authority dependence)이 있다(박영신, 2001; Turiel, 1983, 2008). 도덕 원칙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고(허용성이 매우 낮고), 시간과 장소, 문화와 같은 사회적 맥락과 관계없이 판단되고(일반성이 높고), 위반을 규제하는 규칙의 존재 여부, 지도자나 신과 같은 권위자의 승인 여부, 다수에게

1) Kohlberg는 도덕 발달 단계를 행위의 자기중심적 결과(처벌 또는 보상)를 고려하는 전인습적 단계(preconventional stage),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에 따르는 인습적 단계(conventional stage),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의(justice)와 보살핌(care; Gilligan, 1977)의 원칙을 따르는 후인습적 단계(postconventional stage)로 구분하였다.

받아들여지는 관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규칙/권위 의존성이 낮다). 즉, 도덕 위반은 보편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으로 판단되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사회-인습의 위반은 도덕 원칙에 비해서는 허용되는 편이며(허용성이 높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고(일반성이 낮고), 위반을 규제하는 규칙이 존재하거나 권위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판단이 달라진다(규칙/권위 의존성이 높다). 즉, 사회-인습의 위반에는 상대주의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부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인습과 비교했을 때, 도덕 영역에 대한 판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편성과 일반성을 지닌다.

둘째, 도덕과 인습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의 근거를 따지는 정당화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도덕 원칙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회피하고(avoiding harm),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promoting people's welfare), 공평함을 지키고(ensuring fairness), 권리를 보호하는 것(protecting rights)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도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은 타인의 복지와 정의, 권리의 침해 여부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도덕 영역의 정당화 근거를 피해-정의-권리(harm-justice-right) 또는 보살핌과 정의(care and harm)로 명명한다(Fessler 등, 2015; Graham 등, 2011; Haidt, 2001; Kelly 등, 2007). 반면, 사회-인습은 기관이나 집단의 관행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습의 위반에 대한 판단은 사회 질서 유지나 사회 조직과 규칙, 권위의 역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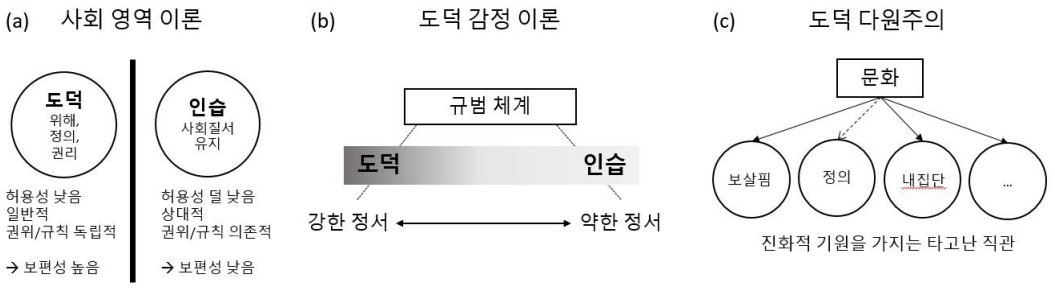
Kohlberg(1969)가 도덕 원칙이 인습에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연령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사이로 보았으며, 후인습적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성인들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Turiel과 동료 연구자들(Nucci, 1981; Smetana, 1995; Turiel, 1983, 2008)은 도덕 위반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인습에 대한 이해에 우선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들도 도덕과 관련된 사건은 다른 규범 위반 사건과 명확하게 구분하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사회 영역 이론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덕 영역을 구별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가정하며, 도덕과 인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도덕 판단 능력의 손상으로 간주한다(Blair, Jones, Clark & Smith, 1997; Huebner, Lee & Hauser, 2010). 5세 전후의 아동들도 도덕 원칙을 위반한 사건은 인습을 위반한 사건보다 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규칙의 존재나 권위자의 지시와 무관하게 나쁘다고 판단하며, 정의나 평등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을 정당화한다(Turiel, 1983). 최근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아동들의 의견(동조 압력)과 같은 사회적 맥락이 인습 위반에 대한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도덕 판단에는 영향을 덜 미치며, 연령과 무관하게 도덕 판단의 안정성이 유지되었다(Kim, Chen, Smetana & Greenberger, 2016). 반면, 도덕성 손상이 주요 특징인 사이코패스의 경우, 도덕과 인습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ir 등, 1997). 사회 영역 이론은 생애 초기부터 도덕적 사고가 가능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추론 능력의 발달이 도덕적 사고의 바탕이라고 보는 Kohlberg의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Turiel(2010) 자신은 Piaget와 Kohlberg의 합리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며 도덕과 인습의 구분도 도덕 직관(moral intuition)보다는 도덕 추론의 결과이며, 사회 영역 이론이 도덕성의 인지 발달 모형을 계승한다고 주장한다.

Piaget와 Kohlberg에서 사회 영역 이론으로 이어지는 인지 발달 이론들은 1960년대 인지 혁명 이후로 오랫동안 도덕 판단 연구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Haidt, 2007, 2008). 도덕 판단의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인지 발달 이론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도덕-인습의 구분을 도덕 판단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해왔으며,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도덕 판단을 연구하는 주요 틀로 활용해왔다(예를 들어, Aharoni, Sinnott-Armstrong & Kiehl, 2012; Blair, 2007; Killen, Smetana & Smetana, 2006; Levy, 2005; Nichols & Folds-Bennet, 2003; Nucci, 1981; Royzman, Leeman & Baron, 2009; Schmidt, Rakoczy & Tomasello, 2012; Song, Smetana & Kim, 1987; Tisak & Turiel, 1988; Turiel, 1983). 그러나 도덕-인습의 구분은 단순히 도덕 판단을 연구하는 틀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다.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인간이라면 (거의)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 즉 도덕 원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도덕 원칙은 제도와 규칙의 유무나 권위자의 승인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사회 인습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덕과 인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구분은 시간과 상황에 걸쳐 안정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즉, 도덕-인습 구분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도덕 객관주의(moral objectivism)*라는 도덕성의 본질에 대한 입장을 제안 한다(Huebner, Dwyer & Hauser, 2009; Nichols & Folds-Bennet, 2003; Royzman 등, 2009; Smetana, 1995).

도덕 판단에 대한 인지 발달적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도덕 판단에 정서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순전히 인지적인 추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정서 및 사회심리학의 발견, 실제로 도덕 판단에 직관적 사고와 정서와 직관 관련 영역들이 관여한다는 신경과학의 발견, 비교문화연구와 인류학, 진화생물학에 바탕을 둔 기능주의적 관점이 등장하면서 도덕 판단을 합리적 추론의 결과로 보았던 기존의 입장은 까다로운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2](de Waal, 1996; Fessler 등, 2015; Greene 등, 2001; Haidt, 2001; Kagan, 1984; Kelly 등, 2007; Nichols, 2002). 도덕 판단이 합리적 도덕 추론 과정을 거쳐 일어나며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판단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가정을 반박하는 핵심 논거로서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도덕-인습의 구분이 기존 이론에서 제안하는 것만큼 명확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발견들은 인지 발달적 접근이 가정하는 객관주의와 합리적 추론 모형을 반박 한다(Barret 등, 2016; Fessler 등, 2015; Haidt, 2001; Kelly 등, 2007; Killen, Smetana & Smetana, 2006; Quintelier &

2) Wilson(1975)과 Haidt(2007)는 도덕성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을 새로운 통합(New Synthesis)이라고 불렀다. Haidt(2007)는 새로운 관점이 기존의 인지 발달 모형과 대립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도덕 심리학의 이론들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모형이라고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 두 입장을 대비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 사회 영역 이론에서는 도덕과 인습이 보편성과 정당화 근거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된다고 본다(a). 도덕 감정 이론에서는 규범 위반 사건을 접했을 때 규범 체계와 강한 정서 경험이 결합되면 도덕 사건으로 판단하게 되며 도덕-인습이 정서-비정서의 일차원 상에 연속적으로 분포한다고 본다(b).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진화적 기원을 가지는 타고난 직관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이 도덕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어떤 영역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가는 문화 학습을 통해 결정된다고 본다(c).

Fessler, 2015; Quintelier, Fessler & De Smet, 2012). 따라서 도덕 심리학에서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논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논쟁들을 사회 영역 이론에서 가정하는 도덕-인습 구분의 기준인 1) 보편성과 2) 정당화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편성 기준에 대한 비판: 도덕 감정 이론과 도덕 지역주의

도덕과 인습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규범 위반에 대한 판단의 보편성이다. 도덕 원칙의 위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허용성),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일반성), 규칙의 존재나 권위자의 승인 여부에 무관하게 동일한 판단을 내린다(규칙/권위 의존성)(박영신, 2001; Turiel, 1983, 2008). 예를 들어, 어린 아동들도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시간이나 장소, 선생님의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나쁜 행동이고, 심지어 신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Smetana, 1983; Smetana, 1995; Tisak, 1995).

보편성 기준은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논쟁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보편성 기준에 대한 반론은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도덕 감정 이론(moral sentimentalism; Nichols, 2002; Prinz, 2006; Prinz & Nichols, 2010)과 도덕 상대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도덕 지역주의(Moral Parochialism; Fessler 등, 20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덕 감정 이론에서는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도 감정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 지역주의는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보편성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도덕 감정 이론

도덕 판단에서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Avramova & Inbar, 2013; Batson 등, 1988; Chapman & Anderson, 2013; Decety & Cowell, 2018; Greene 등, 2001; Haidt, Koller & Dias, 1993; Huebner 등, 2009; Nichols, 2002; Prinz, 2006). 많은 선행 연구들은 정서가 단순히 도덕 판단 과정에 수반하는 경험이 아니라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실험적으로 역겨움을 유발하면 도덕 위반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Haidt 등, 1993; 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8; Ugazio, Lamm & Singer, 2012),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예를 들어, 불공평한 분배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의사는 분노를 경험하는 정도에 비례한다(Fehr & Gächter, 2002; Pillutla & Murninghan, 1996). 도덕 판단을 할 때 정서와 직관적 처리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복내측전전두피질이나 피질하부영역들이 활성화된다는 뇌 영상 연구 결과들도 축적되어 왔다(개관논문으로는 Eres, Louis & Molenberghs, 2018; Moll & de Oliveira-Souza, 2007).

도덕 감정 이론[3]에서는 정서는 판단의 강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규범에 대한 판단이 언제나 정서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서가 수반되면 그 정서가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Prinz & Nichols, 2010). 이러한 주장은 Nichols(2002)가 '감정을 수반하는 규범(norms with feeling)'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그림 1b). Nichols(2002)는 도덕과 인습을 구분할 때, 규범 이론(normative theory: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가에 대한 개인의 이해)과 정서 기전(affective mechanism)이 함께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떤 규범 위반이 도덕 위반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그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라는 규범적 판단과 동시에 강한 부정적 정서가 경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덕 위반이 보편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도덕 위반이 대체로 더 강력한 부정적 경험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전통적으로 인습으로 여겨지는 규범의 위반이라도 강한 부정적 정서 상태를 유발한다면 도덕 원칙이 지니는 낮은 허용성, 높은 일반성, 낮은 규칙/권위 의존성이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도덕으로 여겨지는 규범의 위반도 약한 정서가 경험되는 경우 보편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3)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은 정서가 작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여러 입장으로 나뉘기도 한다(Prinz & Nichols, 2010). 여기서는 정서가 도덕 판단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구성적 감정이론(constructive sentimentalism) 또는 정서적 구성모형(emotional constitution model)을 중심으로 도덕 감정 이론을 기술한다.

Nichols(2002)는 사회 영역 이론의 기준에 따라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도덕 위반 사건과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는 인습 위반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작한 뒤, 참가자들에게 도덕 위반 사례 중에서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사례(다른 아이를 때리기)와 약한 감정을 유발하는 사례(다른 아이 머리를 잡아당기기), 인습 위반 사례 중에서 강한 역겨움을 유발하는 사례(식사 중 자신의 물 컵에 침 뱉기)와 약한 역겨움을 유발하는 사례(수업 시간에 코 후비기)를 제시하고, 사회 영역 이론에서 제안하는 보편성의 세 기준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한 역겨움을 유발한 사례는 허용성, 일반성, 규칙 독립성 차원에서 모두 도덕과 유사하게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영역 이론에서 제안하는 도덕-인습 구분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규범 체계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정서 경험이 도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Nichols(2002, 2004)는 도덕-인습이 서로 구별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강한 정서 경험과 연결된 규범이 비인습적으로 판단되고 약한 정서와 연결된 규범이 인습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회 영역 이론의 보편성 기준을 비판하고, 정서 관여 여부에 따라 도덕-인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보다 더 강하게 정서의 인과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정서가 규범을 '도덕화(moralization)' 한다고 제안 한다(Kagan, 1984; Prinz, 2006, 2007; Prinz & Nichols, 2010; Wheatley & Haidt, 2005). 예를 들어, Wheatley와 Haidt(2005)는 실험 참가자들이 특정 단어를 들으면 역겨움을 경험하도록 최면을 건 뒤, 다양한 규범 위반과 관련된 사례들을 판단하도록 하자 역겨움 유발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으며, 이 효과는 도덕과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인습 관련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Haidt는 강한 정서 경험과 직관을 연관 지어 정서-의존적 직관(affect-laden intuition)이 도덕의 기초를 이루며 논리적 추론은 직관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예를 들어, Greene & Haidt, 2002). 어떤 규범 위반이 도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정서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Prinz와 Nichols(2010)는 아동이 사회적 자기(social self)의 형성 과정에서 규범을 내재화하고, 이때 강한 정서와 연합되었던 규범들이 도덕화 된다고 제안한다. 이는 도덕 원칙을 포함하는 모든 규칙이 인습에 의존한다고 보았던 Kagan(1984)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손을 들지 않고 발언을 하는 행위와 다른 친구를 때리는 행위에 대해 판단할 때 경험하는 정서의 차이가 전자는 인습으로 후자는 도덕으로 분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때, 친구가 맞는 상황은 손을 들지 않고 발언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서를 유발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승인 여부와 같은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쁘다고 판단된다. 도덕과 인습이 유발하는 정서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는데, 인습의 위반은 당혹감(embarrassment)과 같은 타인을 의식한 정서를 유발하지만 도덕의 위반은 죄책감(guilt)과 같은 자신을 향한 정서를 유발한다. Prinz(2006)는 아동에게 규범을 가르칠 때 특정 규범과 특정 정서를 연합시키게 되는 과정에서 도덕-인습의 구분이 형성된다고 제안하였다. 사회 영역 이론에서 인습으로 분류하는

규범이라도 도덕 관련 감정과 연합되는 경우(예를 들어, 역겨움이나 죄책감)에는 이 규범이 '도덕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 감정 이론에 따르면, 정서가 규범적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중요도를 향상시켜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도덕적 사고 과정과 상호작용한다.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정서의 개입 정도에 따라 보편성 관련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도덕-인습 구분의 타당한 기준이 아닐 수 있다. 사이코패스들이 모든 규범을 인습처럼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한 Blair(2007)는 그 자체를 도덕성의 손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 영역 이론의 도덕-인습 구분에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덕 감정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Arvamova & Inbar, 2013; Nichols, 2002; Prinz, 2007) Blair와 동료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보고해온 사이코패스의 도덕 판단 관련 정서 기전의 손상이 곧 정서의 도덕화 기능을 지지해주는 증거라고 본다. 규범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도 정서 경험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규범을 인습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4].

도덕 감정 이론은 도덕-인습의 전통적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입장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에 소개할 도덕 지역주의와 도덕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며, '도덕화'와 '정서-의존적 직관'이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도덕 지역주의

도덕 지역주의는 인류학과 비교문화 심리학, 진화 생물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덕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며, 도덕성을 문화 진화(cultural evolution)의 결과물로 간주한다. 도덕 지역주의에 따르면(Fessler 등, 2015), 제한적인 인지 자원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부정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진화적으로 개인에게 유리한 전략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집단의 협동을 이끌어내고 무임승차나 착취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집단 수준에서 강한 진화적 이득을 지닌다. 그 결과, 집단 수준에서는 집단에 이익이 되는 규범이 만들어지는 문화 진화가, 개인 수준에서는 규범을 준수하여 집단 내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개인 내적 기제(심리학적 기제)를 만들어내는 유전적 진화가 일어난다. 규범의 준수와 엄격한 도덕 판단은 타인의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판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인의 집단 내 적합도를 높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덕 판단이란 '현재' 자신의 '소속 집단'이라는 맥락 속에서만 의미

4) 그러나 사이코패스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만 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안과(Aharoni, Sinnott-Armstrong & Kiehl, 2012), 사이코패스에서도 정상 집단과 동일한 도덕-인습 구분이 관찰된다는 최근의 보고도 있었다(Cima, Tonnaer & Hauser, 2010).

가 있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나 소속 집단과 무관한 먼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은 잠재적 협동을 보장하는 평판과 무관하며, 위반 주체를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도덕 판단을 위한 자원들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 또한 집단 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개인의 적합도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권위나 규칙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도덕 지역주의에서는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권위와 규칙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시간이나 장소가 가까운 경우에는 강한 도덕적 정서를 경험하는 내적 기제가 작동하여 엄격하고 보편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시간이나 장소가 먼 경우에는 이러한 정서적 기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덜 엄격하고 상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규칙이나 권위의 승인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5].

도덕 지역주의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주로 Fessler와 동료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Fessler 등, 2015; Kelly 등, 2007; Quintelier 등, 2012; Stich, Fessler & Kelly, 2009). 예를 들어, Kelly 등(2007)의 연구에서는 배에서 선원들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행동과 군사 훈련 중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과 같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도덕 사건들의 발생 시점(2004년 vs. 300년 전), 발생 장소(고대 그리스와 로마 vs. 200년 전 미국), 권위자의 승인이나 규칙 유무(금지되었다 vs. 허용되었다)를 조작한 뒤, 사람들에게 제시된 규범 위반 행위가 얼마나 나쁜지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가 가깝고 금지 규칙이 있을 경우에 비해서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가 멀거나 금지 규칙이 없거나 허용 규칙이 있는 경우에 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다른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Quintelier & Fessler, 2015; Quintelier 등, 2012), 일곱 개의 다른 문화권(두 개의 대규모 사회와, 다섯 개의 소규모 사회)에서 수행된 비교문화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Fessler 등, 2015). 그 밖에도 사회정체성 이론의 맥락에서 연구되어 온 '검은 양 효과(Black sheep effect, Eidelman & Biernat, 2003; Marques, Yzerbyt & Leyens, 1988)에서도 도덕 지역주의를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검은 양 효과는 긍정적 집단 정체성 유지를 위하여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내집단원을 외집단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도덕 판단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도 협동하지 않거나(정의) 범죄를 저지른(피해) 내집단원을 같은 행동을 한 외집단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Gollwitzer & Keller, 2010; Kerr, Hymes, Anderson & Weathers, 1995; Shinada, Yamagishi & Ohmura, 2004), 이는 집단의 유지와 집단 내 개인의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엄격한 판

5) 이러한 예상은 도덕 판단을 먼 심리적 거리와 관련 있는 상위의 처리 과정으로 가정하는 사회 심리학의 해석 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 Trope & Lieberman, 2010)의 예측이나 관련 연구 결과(Agerström, Bjorklund & Carlsson, 2012)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석 수준 이론에서는 추상적 판단과 구체적 판단의 대비에 초점을 두며 지역주의와 관련된 집단 정보(참가자가 속한 지역과 시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을 내릴 것이라는 도덕 지역주의의 가정과 일관되는 결과들이다[6].

Quintelier와 Fessler(2015)는 도덕 지역주의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을 개관하면서, 사회 영역 이론에서 도덕-인습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는 보편성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보편성이 도덕-인습을 구분하는 타당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정의, 권리와 관련된 전형적인 도덕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발생 장소나 시간, 규칙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찰되는 자료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통적인 도덕-인습 구분 과제에서 사용되는 위반 사례들은 사회 영역 이론의 가설을 지지하는 데 유리하게 선택된 제한적인 사례들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보일 수 있는 사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미 보편성이 도덕규범의 속성이라고 규정한 상태에서 그에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 뒤, 보편성을 근거로 도덕이 인습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은 순환 논리라는 것이다. 또한 도덕-인습의 엄격한 구분이 피해, 정의, 권리의 문제 이외의 다른 도덕적 내용에 대한 탐구를 가로막고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맥락주의 또는 상대주의적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도덕 판단 연구의 범위를 제약한다고 비판한다.

정당화 기준에 대한 비판: 도덕 다원주의

도덕 감정 이론과 도덕 지역주의가 도덕-인습을 구분하는 보편성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정당화 기준에 대한 의문은 Haidt(2001)의 사회적 직관주의자 모형(Social Intuitionist Model)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 다원주의(moral pluralism)에서 제기되어왔다(Graham 등, 2013). 도덕 다원주의는 도덕 지역주의와 마찬가지로 진화적 관점과 비교문화 연구 결과들을 수용하면서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 또한 받아들인다(Gill & Nichols, 2008).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사람들이 기초적인 도덕 직관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러한 직관에는 진화적 기원이 있다고 가정한다. 타고난 직관은 문화 학습(cultural learning)을 통해서 개인이 속한 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발달하고, 그 결과 문화에 따라 다른 규범 체계를 획득하게 된다(그림 1c). 도덕 판단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에 내재화된 직관에 의존하며, 직관적 판단에 정서가 관여한다. 도덕 추론은 직관적 판단을 합리화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6) 검은 양 효과가 인습 영역에서만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Schmidt, Rakoczy & Tomasello(2012)은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인습을 위반하는 경우와 친구와 함께 만든 작품을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도덕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주체의 소속집단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는데, 인습 위반의 경우에는 외집단원 보다 내집단원이 위반하였을 경우에 더 많은 반응을 보였으나 도덕 위반의 경우에는 집단정보와 무관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 영역 이론의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로, 다양한 규범 위반 사례들을 사용하여 다른 연령대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도덕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도덕 감정 이론의 규범 체계와 정서 기전으로 구성되는 이원 모형을 받아들인다. 도덕 감정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규범에 대한 이해와 강한 정서 경험이 결합할 때에 도덕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 중에서도 정서 기전에 초점을 둔다. 반면,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규범에 대한 이해, 즉 문화에 따라서 내재화된 규칙에 초점을 둔다. 동일한 강도의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규범 체계가 없다면 도덕 판단이 불가능하다.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도덕 원칙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회 영역 이론의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규범의 종류가 전통적인 정당화 근거인 피해, 정의, 권리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허용성, 일반성, 규칙/권위 독립성이라는 보편성 기준을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보편성은 사회 영역 이론에서 주장하는 범문화적인 보편성이 아닌 개인에게 의미를 지니는 문화 안에서의 보편성을 의미한다. 문화 내 보편성 기준을 적용했을 때, 사회 영역 이론에서 인습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규범들도 도덕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Haidt와 동료 연구자들(Graham 등, 2011; Graham 등, 2013; Haidt, 2001)은 도덕 영역 안에 적어도 다섯 개의 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도덕 영역에 포함되었던 피해, 정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살핌(harm/care)과 정의(fairness/justice) 차원으로 통합하고, 인습으로 간주되었던 내집단/충성(ingroup/loyalty), 권위/존중(authority/respect), 신성함/순결성(sanity/purity) 차원 또한 문화에 따라서 도덕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도덕 다원주의는 도덕 지역주의와 유사한 진화적 관점을 취한다. 집단의 유지와 집단 내 개인의 존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능적으로 유용한 규범들이 도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집단의 규칙을 따르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사회 영역 이론의 관점에서는 인습에 해당하지만,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문화적으로 권위의 존중과 충성이 내집단 결속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우 도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보살핌과 정의 관련 규범들이 범문화적으로 도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집단의 결속을 유지하고 집단 내 개인의 적합도를 높이는 데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며, 문화나 개인차에 따라서 도덕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규범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덕-인습 구분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도덕 영역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Haidt와 동료 연구자들(Graham 등, 2011; Graham 등, 2013)은 미국 내 다양한 사회 집단 및 국가 간 비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살핌과 정의만이 도덕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회 영역 이론의 주장이 실제 사람들의 도덕 판단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사회 영역 이론의 연구들이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고 진보적 정치 성향을 지닌 서구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도덕 영역을 다른 가치들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Haidt 등(1993)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정의에 위배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harmless-offensive)

과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도덕 사건들, 유니폼 착용과 같은 전형적인 인습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사회 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는 전형적인 도덕 사건들만을 심각하고 보편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고로 죽은 반려견을 먹거나 국기를 사용하여 변기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도덕과 무관한 사건도 심각하고 보편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만 사회 영역 이론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회 영역 이론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보살핌과 정의에 관련된 문제만을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한 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도덕 다원주의 이론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 영역을 모두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ham, Haidt & Nosek, 2009).

도덕 다원주의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도덕 영역들이 넓은 의미해서 피해(harm)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Avranova & Inbar, 2013; Gray & Keeney, 2015; Gray, Waytz & Young, 2012; Schein & Gray, 2015). Gray와 동료 연구자들 (Gray 등, 2012; Schein & Gray, 2015)은 이원적 도덕성(dyadic morality, 또는 일원론: monism)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피해(harm)의 차원이 공통적으로 도덕 판단의 근간을 이룬다고 하였다. 도덕 다원주의 이론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피해와 순결성(purity) 차원의 구분을 예로 들면, 자신의 물 컵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행동은 폭행과 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와 구분되는 순결성 차원이라기보다는 동일하게 가해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Royzman 등(Royzman 등, 2009; Royzman, Leeman, Sabini, 2008)은 세금 탈루와 같이 강한 정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해치는 행동 또한 도덕적 사건으로 판단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도덕 다원주의가 제안하는 도덕 영역의 다원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Graham 등(Graham, 2015; Graham 등, 2016)은 도덕 일원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근거가 주로 심각성의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도덕 영역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려되어 온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하였다. 도덕 다원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당화 근거(위반 내용)를 사용한 도덕-인습 구분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수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행 연구들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

도덕-인습의 구분은 도덕 판단 연구의 주요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되어왔다. 도덕-인습 구분 능력으로 도덕 발달 정도를 가늠할 만큼 도덕성의 핵심으로 간주되어왔을 뿐만 아니라(Nucci

& Turiel, 1978; Turiel, 1983, 2008), 도덕 객관주의와 상대주의(Huebner 등, 2009; Nichols & Folds-Bennet, 2003; Royzman 등, 2009; Smetana, 1995), 도덕 다원주의와 일원론(Gray & Keeney, 2015; Graham 등, 2016)과 같은 도덕성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은 사회 영역 이론에서 제안한 도덕-인습의 구분 기준을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두며, 도덕-인습의 구분 자체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이다. 소수의 연구들에서 도덕-인습의 구분의 개인차를 확인한 경우는 있지만(Cole Wright, Cullum & Schwab, 2008; Huebner 등, 2010; Leenders & Brugman, 2005), 대부분의 연구들은 "만약 도덕-인습 구분의 전제가 참이라면" 관찰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덕 판단의 양상이 실제로 관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귀류법적 접근을 채택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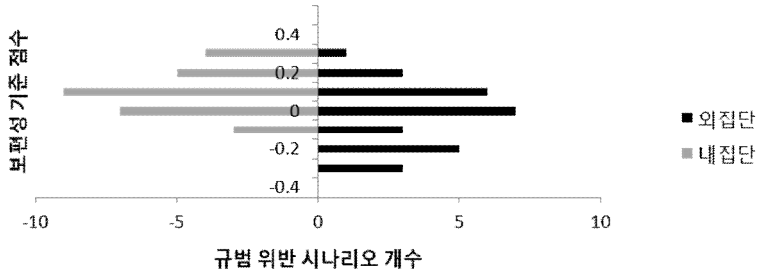
사람들이 실제로 도덕과 인습을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도덕-인습 분류 과제 또는 보편성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서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분류)을 측정한 뒤, 그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의 저자들은 도덕-인습을 구분하는 보편성 기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 연구자가 사전에 위반 사건의 종류를 지정하는 방법 대신 참가자들에게 위반 사건들의 보편성 정도를 평정하도록 한 뒤, 그 양상을 살펴보는 다음과 같은 예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가자: 대학생 81명 (남: 36명, 여: 45명; 연령: M = 19.91세, SD = 1.73).

연구 절차: 대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규범 위반 사례들에 대한 28개 시나리오를 제작한 뒤 참가자에게 사회 영역 이론에서 제안하는 보편성의 기준인 허용성, 일반성, 규칙 독립성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시나리오에는 사회 영역 이론의 정당화 기준에서 도덕 영역(위해, 권리, 정의)과 인습 영역(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사례를 고르게 포함시켰다. 참가자들은 (1) 각 위반 사례가 얼마나 허용 가능한지, (2) 다른 학교에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허용 가능한지, (3) 해당 행동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나쁘고, (4) 해당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 없다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하여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 (1)을 허용성 점수, (1)과 (2)의 차이를 일반화 점수, (3)과 (4)의 차이를 규칙 독립성 점수로 하여, 각 점수를 표준 점수(Z 점수)로 변환한 뒤 합산하여 '보편성 점수'를 구하였다.

이때, 참자가들은 내집단 조건(N=46)과 외집단 조건(N=35) 중 하나에 무선할당 되었는데, 내집단 조건에서는 참가자의 소속 대학교에서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외집단 조건에서는 다른 대학교에서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 영역 이론의 가정대로 보편성 기준에 따라 도덕-인습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된다면, 첫째, 보편성 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단봉형(unimodal)의 연속적 분포를 보이기보다는 양봉형(bimodal) 분포를 보일 것이며, 둘째, 위반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같은 사회적 정보는 보편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편성 점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고 내집단 조건과 외집단 조건에서 보편성 판단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분석



(그림 2) 예비 연구 결과. 보편성 기준 점수 (허용성이 낮은 정도+ 일반성이 높은 정도+ 규칙 독립성이 높은 정도, 평균 중심화 된 점수임)에 따라서 다양한 일상생활의 규범 위반 사례의 분포를 표시하였을 때, 단봉형 분포를 보이며, 위반 주체의 소속 집단에 따라서 보편성 정도의 판단이 달라진다. 내집단원이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도 규범의 보편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반면, 외집단원이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범의 보편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그림 2), 보편성 기준의 분포가 단봉형으로 하나의 다양한 규범 위반 사례들이 연속선상에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고, 위반 주체의 소속 집단이 내집단인 경우와 외집단인 경우에 보편성 점수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t(54)=3.213$, $p=.002$].

예비 연구의 함의: 예비 연구의 결과는 도덕 감정 이론의 규범들이 하나의 차원 상에 연속적으로 분포할 것이라는 가설과 도덕 지역주의의 집단 정보에 따라 보편성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모두 지지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연구 참가자인 대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법한 위반 사례들을 사용하여 실생활에서의 도덕 판단에서 도덕-인습 구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예비 연구를 확장하여 실생활의 규범 위반 사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시나리오를 제작한 뒤, 도덕-인습 구분의 기준들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 점수를 획득하고, 다차원 상에서 몇 개의 범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Huebner 등, 2010).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논쟁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도덕 판단에서 일어나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도덕-인습 구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경험적 증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논의

최근 심리학 전반에서 영향력이 증대해 온 진화 이론과 신경과학 연구들, 정서 기전에 대한 연구들은 도덕성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과 기능주의적 관점을 도입한 통합적 이론들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Haidt, 2007, 2008). 본 논문에서는 도덕 감정 이론, 도덕 지역주의, 도덕 다원주의

를 중심으로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 감정 이론은 도덕 판단 시 경험되는 정서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며, 규범 체계와 강한 정서 경험이 결합할 때 규범이 '도덕화' 된다고 제안한다. 둘째, 도덕 지역주의는 집단의 유지와 집단 내 개인의 진화적 적합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도덕 판단이 기능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위반이 발생한 장소와 시점, 위반 주체의 소속 집단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도덕규범의 위반에 대한 판단이 정서의 개입 정도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사회 영역 이론의 보편성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셋째, 도덕 다원주의는 진화적 기원을 가지는 타고난 도덕 직관이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화권마다 다르게 내재화되며, 그 결과 도덕 영역으로 간주되는 규범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피해, 정의, 권리와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내집단 충성이나 권위에 대한 존중과 같이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된 인습적 사건도 도덕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사회 영역 이론에서 제안하는 정당화 기준을 비판한다.

도덕 심리학에서 도덕-인습의 구분은 도덕 판단을 연구하는 주요한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정의하고 도덕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Piaget, Kohlberg, Turiel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인지 발달 이론가들은 도덕은 피해, 정의, 권리와 관련된 가치들을 포함하는 규범으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집단 내 규범인 인습과 명확하게 구분되며, 사회문화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도덕-인습의 구분을 도덕 판단 능력, 나아가서는 도덕성을 평가하는 근거로 보았으며, 어린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도덕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을 인습과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보편타당한 도덕 원칙이 존재한다는 도덕 객관주의를 시사한다.

반면, 도덕-인습 구분의 보편성과 정당화 기준에 대한 비판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도덕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덕 영역에 포함되는 규범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도덕-인습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도덕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 감정 이론에서는 정서 기전과 함께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 이론을 가정하는데, 여기서 규범은 당위를 규정하므로 상대적이지 않다. Haidt(2012)는 도덕 다원주의를 통해 옳고 그름이 상대적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의 다양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도덕 다원주의의 입장을 굳이 분류하자면 기능주의 또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입장에 가깝다는 것이다. Fessler와 동료 연구자들(Fessler 등, 2015; Quintelier & Fessler, 2015)도 도덕과 인습의 구분이나 도덕과 인습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영역 이론에서 제안하는 구분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 영역 이론의 정의에 따라서 규범을 구분하였을 때 사회 영역 이론의 가설에 따른 반응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그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논쟁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도덕성에 대한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도덕 판단 연구들에는 '사실'의 관찰과 기술,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경험 과학의 요소와 '당위'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 요소가 혼재한다. 도덕 원칙이 다른 사회 규범들과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통적 인지 발달 모형의 도덕 추론 방식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택한다. 도덕 원칙의 정의 자체가 시대와 장소,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므로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고 가정하고 연역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판단 - 좋고 나쁨의 정도,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나 강도, 처벌의 강도 등 - 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자체에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Gibbs, 2014; Huebner 등, 2010; Turiel, 1983). 반면, 도덕 감정 이론, 도덕 지역주의, 도덕 다원주의 연구들은 사람들의 도덕 판단이 '실제로' 어떠한가에 초점을 두고 현상을 기술하고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반 대중의 도덕 판단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관찰의 틀은 연역적 접근에서 제공하는 이론들에 바탕을 둔다. 동시에, 사실에 대한 기술은 도덕-인습 구분에 대한 전통적 이론들이 도덕 판단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도덕 심리학의 두 접근 방식 모두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사람들의 도덕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정확한 모형을 수립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덕-인습 구분에 관한 논쟁은 대체로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해왔다.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되어 온 도덕 판단 연구들을 바탕으로 '만약 전통적 인지 발달 이론에서 제안하는 전제들이 참이라면' 관찰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들이 실제로 관찰되는지 여부를 근거로 삼았다. 도덕-인습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실제 도덕 판단 양상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도덕-인습 구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덕-인습 구분과 관련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규범이 실제로 도덕-인습의 차원 상에서 분류되는가, 아니면 도덕 감정 이론이나 도덕 지역주의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새로운 분류 차원이 존재하는가? 둘째, 도덕-인습의 구분이 연속적인가 불연속적인가? 셋째, 도덕 다원주의에서 도덕 영역으로 편입 시킨 가치들이 피해, 정의, 권리의 문제와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사회 영역 이론의 차원으로 수렴되는가? 넷째, 일상생활에서 경험 가능한 사례와 철학적으로 고안된 극단적 사례에서 관찰되는 도덕-인습 판단에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전통적인 도덕-인습 구분을 지지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는 체계적 설명을 제공하기보다는 탐색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인습의 구분에 대한 논쟁과 관련 연구들은 도덕-인습 구분, 그 자체뿐만 아

니라, 사회 규범 전반의 준수와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개인차 요인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도덕 원칙과 인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도덕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심리적, 상황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가를 밝히는 연구들은 도덕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실생활에서 사람들의 도덕 판단과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영신 (2001).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83-104.

Agerström, J., Björklund, F., Carlsson, R., & Rooth, D. O. (2012). Warm and competent Hassan=cold and incompetent Eric: A harsh equation of real-life hiring discrimin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4*(4), 359-366.

Aharoni, E., Sinnott-Armstrong, W., & Kiehl, K. A. (2012). Can psychopathic offenders discern moral wrongs? A new look at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1*(2), 484-497.

Avramova, Y. R., & Inbar, Y. (2013). Emotion and moral judgment.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gnitive Science*, *4*(2), 169-178.

Barrett, H. C., Bolyanatz, A., Crittenden, A. N., Fessler, D. M., Fitzpatrick, S., Gurven, M., ... & Scelza, B. A. (2016). Small-scale societies exhibit fundamental variation in the role of intentions in moral judg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17), 4688-4693.

Batson, C. D., Dyck, J. L., Brandt, J. R., Batson, J. G., Powell, A. L., McMaster, M. R., & Griffitt, C. (1988). Five studies testing two new egoistic alternatives to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1), 52-77.

Blair, R. J. R. (2007). The amygdala and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in morality and psychopath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9), 387-392.

Blair, R. J. R, Jones, L., Clark, F., & Smith, M. (1997). The psychopathic individual: a lack of responsiveness to distress cues?. *Psychophysiology*, *34*(2), 192-198.

Chapman, H. A., & Anderson, A. K. (2013). Things rank and gross in nature: a review and synthesis of moral disgust. *Psychological bulletin*, *139*(2), 300-327.

Cima, M., Tonnaer, F., & Hauser, M. D. (2010). Psychopaths know right from wrong but don't care.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5*(1), 59-67.

Cole Wright, J., Cullum, J., &Schwab, N. (2008). The cognitive and affective dimensions of moral conviction: Implications for attitudinal and behavioral measures of interpersonal toler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1), 1461-1476.

Decety, J., & Cowell, J. M. (2018). Interpersonal harm aversion as a necessary foundation for morality: A developmental neuroscience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0*(1), 153-164.

De Waal, F. B. (1996). *Good natured* (No. 87). Harvard University Press.

Eidelman, S., & Biernat, M. (2003). Derogating black sheep: Individual or group prote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6), 602-609.

Eres, R., Louis, W. R., & Molenberghs, P. (2018). Common and distinct neural networks involved in fMRI studies investigating morality: an ALE meta-analysis. *Social neuroscience*, *13*(4), 384-398.

Fehr, E., & Gächter, S. (2002). Altruistic punishment in humans. *Nature*, *415*(6868), 137-140.

Fessler, D. M., Barrett, H. C., Kanovsky, M., Stich, S., Holbrook, C., Henrich, J., ... & Pisor, A. C. (2015). Moral parochialism and contextual contingency across seven societies. *Proc. R. Soc. B*, *282*(1813), 20150907.

Gibbs, J. C. (2014). *Moral Development and Reality: Beyond Theories of Kohlberg, Hoffman, and Haid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ill, M. B., & Nichols, S. (2008). Sentimentalist pluralism: Moral psychology and philosophical ethics. *Philosophical Issues*, *18*(1), 143-163.

Gilligan, C. (1977).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s of self and of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4), 481-517.

Gollwitzer, M., & Keller, L. (2010). What you did only matters if you are one of us. *Social Psychology, 41*(1)*,* 20-26.

Graham, J. (2015). Explaining away differences in moral judgment: Comment on Gray and Keeney (2015).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8), 869-873.

Graham, J., Haidt, J., Koleva, S., Motyl, M., Iyer, R., Wojcik, S. P., & Ditto, P. H. (2013). Moral foundations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55-130.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1046.

Graham, J., Nosek, B. A., Haidt, J., Iyer, R., Koleva, S., & Ditto, P. H.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66-385.

Graham J, Haidt J, Motyl M, Meindl P, Iskiwitch C, Mooijman M. (2016). Moral Foundations Theory:

On the advantages of moral pluralism over moral monism. In: Gray K, Graham J, eds. *The Atlas of Moral Psychology: Mapping Good and Evil in the Mind.* New York: Guilford Press.

Gray, K., & Keeney, J. E. (2015). Impure or just weird? Scenario sampling bias raises questions about the foundation of moralit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8), 859-868.

Gray, K., Waytz, A., & Young, L. (2012). The moral dyad: A fundamental template unifying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Inquiry, 23*(2), 206-215.

Greene, J., & Haidt, J. (2002). How (and where) does moral judgment work?.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6*(12), 517-523.

Greene, J. D., Sommerville, R. B., Nystrom, L. E., Darley, J. M., & Cohen, J. 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5537), 2105-2108.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834.

Haidt, J. (2007). The new synthesis in moral psychology. *Science*, *316*(5827), 998-1002.

Haidt, J. (2008). Moralit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1), 65-72.

Haidt, J. (2012).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itics and religion*. Vintage.

Haidt, J., Koller, S. H., & Dias, M. G. (1993). Affect, culture, and morality, or is it wrong to eat your do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613-628.

Huebner, B., Dwyer, S., & Hauser, M. (2009). The role of emotion in moral psycholog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1), 1-6.

Huebner, B., Lee, J. J., & Hauser, M. D. (2010).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in mature moral competence.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10*(1), 1-26.

Kagan, J. (1984). *The nature of the child*. Basic Books.

Kelly, D., Stich, S., Haley, K. J., Eng, S. J., & Fessler, D. M. (2007). Harm, affect, and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Mind & Language*, *22*(2), 117-131.

Kerr, N. L., Hymes, R. W., Anderson, A. B., & Weathers, J. E. (1995). Defendant-juror similarity and mock juror judgments. *Law and Human Behavior*, *19*(6), 545-567.

Killen, M., Smetana, J. G., & Smetana, J. (2006). Social－cognitive domain theory: Consistencies and variations in children's moral and social judgments. In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137-172). Psychology Press.

Kim, E. B., Chen, C., Smetana, J. G., & Greenberger, E. (2016). Does children's moral compass waver under social pressure? Using the conformity paradigm to test preschoolers'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50*, 241-251.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Leenders, I., & Brugman, D. (2005). Moral/non moral domain shift in young adolescents in relation to delinquent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65-79.

Levy, N. (2005). "Imaginative Resistance and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Philosophical Psychology*, *18*(2), 231-241.

Marques, J. M., Yzerbyt, V. Y., & Leyens, J. P. (1988). The "black sheep effect": Extremity of judgments towards ingroup members as a function of group identific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1), 1-16.

Moll, J., & de Oliveira-Souza, R. (2007). Moral judgments, emotions and the utilitarian brai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8), 319-321.

Nichols, S. (2002). Norms with feeling: Towards a psychological account of moral judgment. *Cognition*, *84*(2), 221-236.

Nichols, S. (2004). *Sentimental rules: On the natural foundations of moral judg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ichols, S., & Folds-Bennett, T. (2003). Are children moral objectivists? Children's judgments about moral and response-dependent properties. *Cognition*, *90*(2), B23-B32.

Nucci, L. (1981). Conceptions of personal issue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1), 114-121.

Nucci, L. P., & Turiel, E. (1978).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2), 400-407.

Nussbaum, M. C. (2005). Emotions and the origins of morality. *In Advances in Psychology* (Vol. 137, pp. 61-117). North-Holland.

Pillutla, M. M., & Murnighan, J. K. (1996). Unfairness, anger, and spite: Emotional rejections of ultimatum offer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8*(3), 208-224.

Prinz, J. (2006). The emotional basis of moral judgments. *Philosophical explorations*, *9*(1), 29-43.

Prinz, J. (2007).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 Oxford University Press.

Prinz, J. J., & Nichols, S. (2010). Moral emotions. In *The moral psychology handbook*. Oxford University Press.

Quintelier, K. J. P., & Fessler, D. M. T. (2015). Confounds in moral/conventional studies. *Philosophical Explorations*, *18*(1), 58-67.

Quintelier, K. J., Fessler, D. M., & De Smet, D. (2012). The case of the drunken sailor: On the generalisable wrongness of harmful transgressions. *Thinking & Reasoning*, *18*(2), 183-195.

Royzman, E. B., Leeman, R. F., & Sabini, J. (2008). "You make me sick": Moral dyspepsia as a reaction

to third-party sibling incest. *Motivation and Emotion*, *32*(2), 100-108.

Royzman, E. B., Leeman, R. F., & Baron, J. (2009). Unsentimental ethics: Towards a content-specific account of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Cognition*, *112*(1), 159-174.

Schein, C., & Gray, K. (2015). The unifying moral dyad: Liberals and conservatives share the same harm-based moral templa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8), 1147-1163.

Schnall, S., Haidt, J., Clore, G. L., & Jordan, A. H. (2008). Disgust as embodied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8), 1096-1109.

Schmidt, M. F., Rakoczy, H., & Tomasello, M. (2012). Young children enforce social norms selectively depending on the violator's group affiliation. *Cognition*, *124*(3), 325-333.

Schmidt, M. F., & Tomasello, M. (2012). Young children enforce social norm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4), 232-236.

Shinada, M., Yamagishi, T., & Ohmura, Y. (2004). False friends are worse than bitter enemies: "Altruistic" punishment of in-group member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5*(6), 379-393.

Smetana, J. G. (1983). Social-cognitive development: Domain distinctions and coordinations. *Developmental Review*, *3*(2), 131-147.

Smetana, J. G. (1995). Morality in context: Abstractions, ambiguities and applications.

Song, M. J., Smetana, J. G., & Kim, S. Y. (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77-582.

Stich, S., Fessler, D. M., & Kelly, D. (2009). On the morality of harm: A response to Sousa, Holbrook and Piazza. *Cognition*, *113*(1), 93-97.

Tisak, M. (1995). Domains of social reasoning and beyon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11*(1), 95-130.

Tisak, M. S., & Turiel, E. (1988). Variation in seriousness of transgressions and children's moral and conventional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352-357.

Tomasello, M. (2009). *Why we cooperate*. Cambridge, MA: MIT Press.

Tomasello, M., & Vaish, A. (2013). Origins of human cooperation and mor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 231-255.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Turiel, E. (2008).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orientations toward moral, social, and personal orders: More than a sequence i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51*(1), 21-39.

Turiel, E. (2010). The development of morality. *The Handbook of Life-Span Development*.

Ugazio, G., Lamm, C., & Singer, T. (2012). The role of emotions for moral judgments depends on the type of emotion and moral scenario. *Emotion*, *12*(3), 579-590.

Wheatley, T., & Haidt, J. (2005). Hypnotic disgust makes moral judgments more severe. *Psychological science*, *16*(10), 780-784.

Wilson Edward, O. (1975).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Cambridge: The Belknap Pr. of Harvard Univ. Pr, 8.*

1차 원고 접수: 2018. 05. 16
1차 심사 완료: 2018. 06. 16
2차 원고 접수: 2018. 06. 21
2차 심사 완료: 2018. 06. 24
최종 게재 확정: 2018. 06. 24

(*Abstract*)

A critical review and implications of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in moral judgment

Sunhae Sul Seungmin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article reviews recent arguments on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in moral judgment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moral psychology research. Traditional research on moral judgment has considered both the evaluation of transgressive actions of others and the categorization of the norms on the moral-conventional dimension. Kohlberg, Piaget, and Turiel (1983) regard moral principles to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social-conventional norms and suggested criteria for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They assume that the moral domain should be specifically related to the value of care and justice, and the judgment for the moral transgression should be universal and objective.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or social domain theory, which has been generally accepted by moral psychology researchers, is recently being challenged. In this article, we introduce three different approaches that criticize the assumptions for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namely, moral sentimentalism, moral parochialism, and moral pluralism. Moral sentimentalism emphasizes the role of emotion in moral judgment and suggests that moral and conventional norms can be continuously distributed on an affective-nonaffective dimension. Moral parochialism, based on the evidence from anthropology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asserts that norm transgression can be the object of moral judgment only when the action is relevant to the survival and reproduction of a group and the individuals within the group; judgment for moral transgression can be as relative as that for conventional transgression. Moral pluralism suggests multiple moral intuitions that vary with culture and individual, and questions the assumption of the social domain theory that morality is confined to care and justice. These new perspectives imply that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may not properly tap into the nature of moral judgment and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Key words :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social domain theory, moral sentimentalism, moral parochialism, moral pluralism